

중국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법론

김순녀*

머리말

중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60여년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영어를 비롯한 다른 외국어교육에 비하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 동안의 연구 성과들은 언어지식 전수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언어기능 양성에 관한 연구는 소부분이다.

외국어교육에서 말하기교육은 이른바 “병어리 외국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도경이고 나아가 듣기, 읽기, 쓰기, 번역 등의 기능 제고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지금 중국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실제 교수경험을 토대로 한 말하기 교수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말하기교수는 방법이 단순하고, 언어지식 전수와 언어기능 훈련의 관계 처리에서 주차가 분명하지 못하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들의 실제와 특성에 맞는 말하기교수 방법연구가 깊이 있게 전개되

* 연변대학교

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한국어 말하기교수 방법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말하기교수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논하게 된다.

1. 말하기교수의 성격

한국어교수는 크게 3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 ‘첫째, 한국어는 언어학적이고 한국어교수는 언어교수이다. 둘째, 한국어교수는 외국어교수이다. 셋째, 한국어는 한국어로서의 특성이 있다(최희수, 2005:211-226).

언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배운 언어로 정보를 얻고 교제를 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언어교육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언어지식을 전수하고 언어기능을 양성시키는 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독과목에서 언어지식 전수와 문어로의 교제(읽고 쓰는)기능을 양성하게 되고, 회화과목에서 구어로의 교제(듣고 말하기)기능을 양성하게 된다. 교제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교류이다. 언어로의 교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즉 구어로의 교제와 문어로의 교제이다. 구어로의 교제란 언어의 음성기호를 이용한 교제이고 문어로의 교제란 언어를 기록하는 부호인 문자를 이용한 교제이다. 그러므로 교제기능의 제고란 사실상에서 음성으로의 교제와 문자로의 교제를 가리킨다. 이는 이미 인간의 교제생활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한(韓)민족은 일찍 한자를 서사도구로 써 오면서 중국어로 말하지 못할 경우, 한자를 이용한 필답으로 교제를 하기도 하였다.

현대사회에서도 문자를 통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문자를 이용한 교

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신문을 통하여 소식을 보도하고 전단지로 홍보하는 것과 편지로 의사를 소통하는 것 등도 사실상에서는 문자를 이용한 교제이다. 이는 새로운 소식을 접한 기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새 정보를 신문이라는 매체나 전단지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알리는 문자교제이다. 물론 사회생활에서 사람들 지간의 감정교류와 의사소통이 많은 구어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같이 구어로의 교제능력 양성의 주요한 임무를 감당하게 되는 말하기교수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말하기교수는 학습자들의 언어응용 능력을 양성하는 과목으로 그 자체의 특성을 갖고 있다.

언어교육의 종국적인 목적은 언어지식 전수와 언어응용 능력의 양성이다. 언어교육의 모든 과목들이 이 두 가지 과업을 감당하게 되지만 과목에 따라 치중하는 측면이 다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독과목에서는 언어지식 전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회화과목에서는 언어응용 능력 양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정독, 회화 과목들의 교재, 교수방법들이 다르게 되고 교수목적, 교수원칙 등에서 자체의 특성을 갖게 된다.

모든 언어는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언어습득에서 배우려는 언어의 특성을 잘 장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모든 언어의 특성은 수천 년간의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결정체이다. 말하기능력의 양성 과정은 배우려는 목적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활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모든 언어의 민족적 특성은 어음, 어휘, 문법, 화용, 문자 등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어의 특성도 이 5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어의 특성들은 교제에서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들로 교제기능 양성에 이러저러한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한국어의 존대와 비존대의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중국학습자들이 예의에 어긋나게 말할까봐

두려워 대담하게 교체하지 못하는 현상도 있다. 한국어의 특성은 여러 교과목에서 다 같이 가르쳐야 하겠지만 특히 말하기교수에서 학습자들의 말하기 실천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이해시키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말하기 교수의 현황과 문제점

중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역사는 이미 반세기가 넘었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한국어교육연구가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말해 준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후,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연구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어 교재편찬, 발음교수, 어휘교수, 문법교수, 정독교수, 회화교수 등의 여러 교과들에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왔다. 이 가운데서 말하기교수에 대한 연구도 다른 교과에 못하지 않게 비교적 활발히 진행된 분야로 2000년 이후에만도 근 5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¹⁾.

한국어 말하기교수를 더 잘 하려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특성과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재와 교수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한국어교수방법들은 한국어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교수방법이 아니라 다른 언어교수에서 창조한 방법들을 모방하는 데 그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민족은 일찍부터 읽기와 말하기를 병진시키는 독보적인 외국어 학습방법을 창조하

1) 그 중에서 회화교육의 실제와 발전 방향에 관한 논문이 16편, 교재관련 논문이 4편, 의사소통 관련 논문이 6편, 회화교수요강 관련 논문이 2편, 회화 평가관련 논문이 3편, 말하기 교육방법론에 관한 논문이 13편, 회화교사 자질에 관한 논문이 1편, 기타 3편 등이다.

여 중국어 공부에서 “로결대”, “박통사”, “훈몽자회” 등의 한자 교습서와 회화 책들을 편찬하였었다. 우리의 한국어교수법 연구는 마땅히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성과에서 정화를 받아들이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결코 다른 언어에서의 연구 성과를 배척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한국어교수법의 연구는 마땅히 여러 방면의 성과들을 받아들여 한국어의 실제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탐색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어교육의 발전에 따라 말하기교수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적지 않은 연구 성과들도 나왔지만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그러면 이들을 교사, 교재, 교수법 등 세 개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2. 1 교사

교사는 마땅히 자기가 가르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교수능력 및 과학 연구 능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말하기교수의 경우에는 언어이론지식, 언어습득 이론지식, 언어교수 이론지식, 문화지식 등이 구비되어야 하고 한국어 교재능력, 교수조직 능력, 이론과 실재를 연계시키는 능력들이 골고루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말하기교수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지식 구조와 능력은 말하기교수의 객관적 요구와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말하기교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인식부족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는 말하기교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실상 말하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교과가 아니다. 이 교수를 잘 하려면 해당 교과가 요구하는 지식들을 장악함과 동시에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와 그들의 말하기훈련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조직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방면으로는 말하기교사들의 주관노력의 부족이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어 말하기교수에 필요한 언어, 문화 등 방면의 지식을 참답게 배우지 않거나 교수방법을 연구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 말하기교사양성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이다. 이밖에 교사들이 업무연구능력 제고에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교수실천과 교수이론 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제고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말하기교사양성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주관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역사, 문화 및 언어습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문의 책임자들이 참답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말하기교수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 내는 작업도 해야 한다고 느껴진다.

2. 2 교재

교재는 교사들의 교수와 학습자들의 학습의 주요한 의거로 거기에는 교수내용 외에 교수목적, 교수원칙, 교수방법 등이 반영된다. 그러므로 교재의 좋고 나쁨이 교수질량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지금 중국의 도서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회화교재들이 팔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급별에 따르는 교재와 분야별로 나뉜 교재들이 있다. 이러한 교재들이 중국에서의 한국어 말하기교수에 일정한 도움을 주고 있으나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도 많다. 이런 교재들을 살펴보면 개별적인 교재를 제외하고는 교재의 완전성과 과학성이 부족하고 단순한 경험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수의성이 많다.

말하기는 기지의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과이므로 정독에서 배운 지식을 잘 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재편찬

에서도 새로운 단어를 어느 정도로 확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참답게 연구되어야 한다. 새로운 단어가 많으면 그것을 습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게 되므로 기능훈련을 하는 데 불리하게 된다. 반면 구어와 문어는 구별되는 것만큼 불가피하게 정독교과에서 배우지 않은 새로운 단어가 부득불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새 단어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화교재는 마땅히 양성목표에 기초하여 제정된 편집요강에 따라 어휘, 문법, 문화항목의 등급에 기초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편집되고 내용과 연습 등에서도 교재능력 제고에 유리해야 한다. 또 편찬과정에 본문을 문어체로 쓰느냐 구어체로 쓰느냐, 내용위주냐 문형위주냐, 언어 환경을 한국어로 하느냐 중국어로 하느냐, 문법해석을 간단히 하느냐 상세히 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잘 연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전한 과학적인 체계를 갖춘 초급, 중급, 고급으로 된 회화교재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로 하여 일부 학교들에서는 전후 교재의 연계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채로 말하기교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읽기능력 양성과 말하기능력 양성을 동시에 하느냐, 따로 하느냐에 따라 교재편찬도 달라야 할 것이다. 지금 나온 교재 가운데의 많은 교재가 정독과 회화를 동시에 가르치게 만들어진 복합형 교재들이다. 이것이 과학적이냐 아니면 정독과 회화를 가르치는 것이 더 과학적이냐 하는 문제가 참답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3 교수법

교수법은 교수원칙의 지도 아래 진행하는 구체적인 교수방법이다. 교사는 부동한 대상과 교수내용에 따라 다양한 교수방법을 창조하게 된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학술회의에서 말하기교수법에 대해 논의되기는 하

였지만 대부분 기존의 교수방법에 기초한 연구들이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어가 제일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한국어에 대해 언어 자체가 어려운가,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뒤지고 있는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가 등 여러 측면으로 의문을 갖고 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깊지 못하고 가르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한국어교수에서 사용되는 교수법들은 거개가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에서 창조한 방법론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의 응용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한국어를 더 잘 가르치려면 한국어 자체의 특성에 맞는 교수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어 말하기교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우리들에게 제기된 새로운 과제이다.

방법론 연구에서 마땅히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가 어떻게 학습자의 실제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학습자들의 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교수에서 참답게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이다. 교수법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중국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교수에서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어 존대법을 제대로 쓰게 하겠는가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였다. 그 원인은 중국어에 존대법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틀리게 쓸까 두려워하는 심리적인 부담도 있다. 이에 대해 허용의 원칙에 따라 틀려도 무방하니 대답하게 말하게 하면서 실천 가운데서 존대법사용을 장악하게 하였다. 물론 객관적으로는 한국어 존대법체계가 워낙 복잡하고, 교재에서의 사용에 문제가 있으며, 교사가 존대법의 화용론적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 밖에 한국어회화 강의시간을 얼마로 하는 것이 합리인가 하는 문제도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물론 강의시간은 매개 학교의 양성목표와 같

라놓을 수 없기에 학교와 학습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연구되어야 할 강의시간은 4년제 본과 대학교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이다. 지금의 상황은 학교마다 자기의 특성에 따라 회화가 배치 되고 강의수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회화교과의 강의수, 다른 교과와의 비례 등도 참답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3. 말하기 교수방법

말하기교수는 학습자들의 말하기능력을 신장시킨다는 점에서 정독이나 번역교과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미 배웠거나 알고 있는 언어지식으로 아직 경험해 보지 못 했거나 혹은 익숙지 않은 말하기능력을 신장시키기에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꾸준한 노력이 없이는 예기의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모든 교수의 효과는 주관적 객관적 조건의 제약을 받게 되는데 본장에서는 말하기교수방법과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3. 1 학습자들의 말하기에 영향 주는 요소

다년간의 말하기교수실천에서 학습자들의 말하기에 영향 주는 첫 번째의 요소가 대담하게 말을 하지 못하거나 말을 틀리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적 장애이다. 이러한 심리적 장애의 표현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말할 때 목소리가 너무 낮아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

둘째, 첫 마디를 해 놓고 뒤를 잊지 못해 당황한 채 교사만 뚫어지게 쳐다본다.

셋째, 말할 때 시선을 어디에 들지 몰라 바깥만 쳐다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이미 한 말을 곱씹거나 동문서답한다.

넷째, 앉아서는 생각이 뻘뻘했는데 정작 일어서서 말을 하자고 보니 빛나가서 눈만 깜빡거리면서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곤 한다.

다섯째, 한국어와 중국어를 섞어서 말하며 때론 아예 중국어로 말해 버린다.

여섯째, 말하기 전부터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더듬으면서 굳어더듬기가 많다.

일곱째, 헛기침만 하면서 앞뒤의 말을 연계성 있게 이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리 있게 말하기 어렵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심리장애가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인간의 심리활동은 주관적 객관적 요인에 의해 생기게 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심리적인 장애가 생기는 원인을 알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로 요인으로 하여 말할 용기를 잃게 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크게 주관적인 원인과 객관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한국어지식의 부족, 자신감의 부족, 내향적인 성격 등이고, 후자는 교사의 교수방법의 불합리가 학습자들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다. 즉 지나치게 높은 요구를 제기하거나 학습자들의 오류를 관용하지 못하고 많이 시정해 주는 것 등이 학습자들의 말할 용기를 저하시킨다. 이로 부터 우리는 말하기훈련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너무 완벽한 요구는 금물임을 명심하게 되었고, 그들의 말의 정확여부를 떠나 입을 열고 말을 하게 하는 것이 말하기교수의 첫 과업임을 느끼게 되었다. 아무리 방법이 좋고 수단이 다양해도 학습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 말하기교수는 완전한 실패로 되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대담성을 키워 주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자들에 대한 믿음이다. 학습자가 교사가 진심으로 자기의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자기를 믿어준다는 느낌이 들면 교사를 믿고 대담하게 말을 한다. 반면에 학습자들이 교사가 자기의 말에 틀린 곳이 있다 하여 아니꼽게 여긴다거나 꾸짖는 표정을 조금이라도 느꼈을 때에는 위축을 받고 입을 다물기도 한다.

3. 2 말하기교수의 형식·교실수업

언어습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교실수업을 통하여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방법이다. 전자는 학교교육을 통한 언어 습득이고, 후자는 자연적인 언어습득이다. 우리가 진행하는 한국어교육 즉 중국에서 진행되는 한국어교육도 학교교육을 통한 전수와 습득이다.

학교교육을 통한 언어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교실수업이므로 이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학교교육을 통한 언어교육에서 교실수업이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기는 하지만 교과 특성에 따라 교실 이외의 장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말하기교수의 경우에는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 다양한 형식으로서의 강의도 조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강의를 교실에서 하게 되므로 말하기교수의 방법론 연구는 주로 교실수업을 위주로 논의하게 된다.

교실수업은 계획 있게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교수활동으로 매수업의 교수내용과 방법 등을 세밀하게 설계하게 된다. 때문에 교실수업을 통한 언어전수의 특징은 부동한 교과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목적어의 지식과 응용기능을 전수하고 훈련을 통해 기지의 지식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응용능력을 키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제한된 법칙(문법)을 이용하

여 무한한 문장을 만드는 기능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나 교실수업은 계획적으로 조직된 교수활동으로 교수이론의 제약을 받게 된다. 부동한 교수이론에 따라 부동한 교수원칙과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오랫동안 여러 가지 교수원칙과 방법이 서로 경쟁하면서 언어교육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교실수업에서 준수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학습자들이 교수활동의 주체가 되고 교사가 주도적인 작용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수업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 이 원칙의 구체적인 체현형식은 해당 교과 교수내용에 따라 다르다. 말하기 교수에서의 주도적 작용은 교수설계, 교사시범, 교수흐름의 조절, 학습자들의 기능훈련조직 등에서 체현된다. 여기서 교사시범은 학습자들의 기능훈련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기에 교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말하기교수는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양성을 위주로 하게 되는 교과인 것만큼 교수에서 지식전수와 기능양성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지금 진행되는 말하기교수를 보면 이 양자의 관계처리가 교사에 따라 차이가 크다. 양자를 병행시키는 것과 기능훈련을 위주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이에 필자는 말하기교수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를 돌출하게 해야 한다고 느껴진다.

첫째, 말하기교수에서의 단어는 정독에서 배운 단어를 기본으로 하면서 새로 나온 단어의 해석은 해당 문장에서의 의미와 용법에 국한시키고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

둘째, 말하기교수에서는 문법해석을 적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말하기의 실천 가운데서 문형과 문법형태의 사용방법을 장악하게 해야 한다.

셋째, 말하기를 위주로 많이 말하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듣기와 말하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나 듣기교과가 따로 있는 한, 말하기에서는 말하기가 듣기보다 많아야 한다.

넷째, 매 수업에서 중점이 돌출해야 한다. 한 시간의 수업에서 여러 가지를 늘어놓지 말고, 한 두 개의 문형이나 관용어 사용을 중심으로 훈련 시켜야 한다.

다섯째, 훈련이 잘 되어야 한다. 훈련에는 모방훈련과 창조적인 훈련 두 가지가 있다. 모방훈련은 교재나 교사의 시범을 그대로 따라 하는 훈련이고, 창조적인 훈련은 문형에 따라 단어를 바꾸어 가면서 하는 훈련이다. 학습자들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훈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학습자 수와 시간 사이의 모순이다. 지금 한 개 반의 학습자 수가 많아서 제한된 시간 내에 전체 학습자를 지도하면서 충분히 훈련시킬 수 없는 것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이상의 몇 가지는 필자의 실천경험에서 느낀 바로, 교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특히 말하기교수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 단어와 문법지식 설명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좀 더 참답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3 말하기 능력 기준

언어능력은 일반적으로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번역하기로 나누는데 번역은 다시 구어번역과 문자번역으로 나뉜다. 이러한 능력을 다시 등급에 따라 세분하게 되는데 언어마다 등급의 기준과 요구가 다르다. 즉 1급, 2급, 3급...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매개 등급에서의 구체 요구를 상세히 세분하거나 개략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언어의 능력이란 목적어의 어음, 어휘, 문법 지식을 이용하여 감정을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의 능력이란 목적어의 어음, 어휘, 문

법의 활용능력인 것이다.

그런데 언어의 세 요소는 상대적인 단계성을 갖고 있기에 부동한 등급에서의 능력요구에서는 어음, 어휘, 문법에 대한 요구가 다를 수 있다. 즉 어음과 문법은 단계성을 갖고 있는바 어음 장악이 제일 짧은 시간을 요구하고 그 다음 문법지식에 대한 장악이며 어휘의 장악은 무한정이다. 따라서 부동한 등급에서 세 요소에 대한 요구는 다르게 된다. 또 능력에 대한 구체요구를 어떻게 세분하느냐는 매개 학교마다 교사마다 다를 수 있다. 필자는 초급, 중급, 고급 세 개 등급으로 나누고 기본요구를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했다. 매 항의 요구를 좀 더 세분할 수도 있겠으나 대상과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세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초급>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한국어 교제능력을 양성한다.

- (1) 한국어 음절 글자를 정확히 발음하고 기본적인 어음변화법칙을 장악한다.
- (2) 1500-2000개의 어휘로 생존에 필요한 기초회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3) 기본문형과 구어용 상용 조사·어미를 장악·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4) 소개, 쇼핑, 길 묻기, 전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능력과 병원, 은행, 공항, 우체국, 이발소 등의 공공장소 이용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양성하고 자기의 일과, 약속 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중급> 사회의 일반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교제능력을 양성한다.

- (1) 한국어 음절 글자를 정확히 발음하고 어음변화 법칙에 맞게 말해야 한다.
- (2) 약 5000개 어휘를 이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화를 해야 하며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 (3) 구어용 조사·어미를 장악하고 연결어미로 복합문을 만들며 추상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함과 동시에 상용적인 관용어·속담들을 사용해야 한다.

- (4)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뉴스,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자기가 익숙한 사물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고급> 본인이 종사하는 업무교제에서 필요한 한국어 교제능력을 양성한다.

- (1) 발음이 정확하고 유창하게 한국어로 교제해야 한다.
- (2) 약 8000개 어휘를 비교적 숙련되게 이용하여 사회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에 맞게 대답, 토론, 변론 등을 해야 한다.
- (3) 구어용 조사·어미를 헤아려 쓸 수 있어야 하고 추상적·논리적인 내용을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또 본인 주변에서 자주 쓰이는 속어·방언들을 이해하고 억양이나 몸짓 등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본인 의사를 충분히 표현해야 한다.
- (4) 본인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말해야 하고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와 관련된 사실이나 논설 등에 대한 견해를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이상의 기준은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다. 이를 기초로 학습자의 지향에 따라 더 구체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무역에 종사하려는 학습자와 관광업에 종사하려는 학습자에 대한 요구가 달라야 한다.

3. 4 말하기 교수 원칙

말하기교수원칙에 대해 김종태는 6 가지²⁾를 제기하였으나 필자는 아래의 몇 가지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합리하다고 본다.

2) 첫째, 교제원칙, 둘째, 연관원칙, 셋째, 간결원칙, 넷째, 점진원칙, 다섯째, 허용원칙, 여섯째, 강화원칙(김종태, “한국어회화교육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Ⅱ’, 연변과기대논문집, 태학사, 199-202, 2000).

1) 교제원칙

말하기교육 목적은 한국어라는 도구로 교제를 하려는 데 있다. 교제원칙은 교제의 실천을 기초로 하게 되는데 언어실천이 곧바로 교제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언어 실천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이 다 포괄되는데 이러한 실천이 다 교제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실천에는 교제성 언어실천과 비교제성 언어실천이 있게 된다. 말하기교수에서의 교제원칙은 교제의 가치가 있는 언어재료를 이용한 정보교류의 언어실천이다. 때문에 말하기 기본훈련은 반드시 학습자들의 구어 교제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말하기교수에서의 교제원칙은 언어지식과 언어기능의 조화로운 결합과 상호 전환을 촉진시킬 것을 강조한다. 교수과정에서 언어지식 전수를 중시하고 말하기 기능훈련을 경시하여서는 안 된다.

2) 순서점진 원칙

인간의 객관사물에 대한 인식은 간단하던 데로부터 복잡한 데로, 얕은 데로부터 깊은 데로,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로, 적은 데로부터 많은 데로, 생소하던 데로부터 익숙해지는 데로의 인식과정을 거치게 된다. 언어학습도 이러한 법칙에 따르게 된다. 한국어말하기 능력제고 역시 인간의 이 인식규율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말하기교수에서의 순서점진의 원칙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체현된다.

첫째, 심리상에서의 순서점진.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틀리게 말을 할까봐 두려워하던 데로부터 대담하게 말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게 하는 과정으로의 변화이다.

둘째, 지식 면에서의 순서점진.

이것은 단어나 문법지식이 간단한 데로부터 복잡한 데로의 순서점진이다. 예하면 “바람”에서, “바람이 분다” 할 때의 의미와 “눈이 오는 바람에 길이 막혔다”의 의미는 다르고, 조사 “에”가 “집에 있다”, “아침에 만났다”, “비에 젖었다” 등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다른데 이러한 지식을 이 원칙에 의해 이해하게 해야 한다.

셋째, 기능 면에서의 순서점진.

이것은 교제기능 면에서 간단한 대화로부터 복잡한 대화로, 일상생활 환경에서의 대화로부터 사회생활 환경에서의 대화로의 점진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 말하기 교제환경에서 많이 듣고 적게 말하던 데로부터 점차 화제에 참여하여 많이 말하고, 읽기나 쓰기만을 하던 데로부터 듣고 말하기를 하는 데로의 점진이다.

넷째, 오류에서의 순서점진.

이는 말을 적게 하지만 틀린 곳이 많던 데로부터 말을 많이 하지만 적게 틀리거나 전혀 틀리지 않는 과정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섯째, 표현 능력에서의 순서점진.

이는 간단한 단어나 단어결합으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던 데로부터 점차 짧은 문장으로, 짧은 문장에서 긴 문장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의 변화이다.

3) 연관원칙

언어교제를 할 때 말이 잘 연관되지 않아서 청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게 되면 교제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제에서 대화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조리 있게 연관성 있게 말을 조직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적합한 어휘를 선택하고, 억양과 언어예절 등을

교제환경과 어울리게 하는 훈련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4) 허용원칙

학습자들의 말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말하기교수 효과의 우열을 결정한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항상 틀리게 말할까봐 두려워한다. 교사는 수시로 그들을 격려하여 대담히 말하게 해야 한다. 또 학습자들이 틀리게 말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함과 동시에 그것을 허용해야 학습자들이 대담히 말을 하게 된다.

5) 취미원칙

외국어학습은 주로 외우고 모방하는 기계적인 활동이 많아, 학습취미를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생동하고 활발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위기의 개선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열정과 취미가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학습에서의 취미는 학습자들의 주의력 집중과 학습 적극성을 높일 수 있다. 학습자들의 취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는 교수과정에 몸짓, 표정, 연기 등 다양한 교수형식을 이용할 수 있다.

3. 5 말하기 교수법

교수법은 일정한 교수이론과 교수원칙의 지도 아래에서 교수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부동한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교수방법을 고안해 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외국어교수에서는 학과에 따라 이론과 방법이 다르기에 여러 가지 교수법들이 나왔고 실제 교수실천 중에

서 서로 흡수하면서 외국어교수의 발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이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거니와 만병통치의 교수법도 없다고 생각한다.

교수방법은 우선 교수대상과 내용에 따라 다르게 된다.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는 한국어교수 대상은 대체로 대학 4년제 본과생이므로 대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쓰이는 교재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말하기교수법의 차이는 교재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지금 중국에서 쓰이는 한국어교재들은 크게 복합형 교재³⁾와 분리형 교재⁴⁾로 나뉜다. 이 두 교재는 자기의 장단점이 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교재는 분리형 교재로 읽기 교재와 말하기 교재, 듣기 교재가 제각기이다. 본고에서 논하게 되는 교수법은 분리형 교재에 기초한 것임을 밝혀 둔다. 말하기교수는 기능훈련을 위주로 하기에 학습자들의 언어실천능력과 교제능력 제고를 기본으로 하게 되므로 교수방법에서도 실천성과 교제성이 강조된다.

1) 문답식 교수법

문답식 교수법은 교사가 설계한 환경에 따라 학습자들과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수이다. 묻는 내용은 교재내용에 의거할 수도 있고 학습자들이 관심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문답식에서 우선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문제 되지만 차츰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학습자들 서로 묻거나 학습자가 교사에게 물을 수도 있다.

3) 복합형 교재란 하나의 교재 안에 언어지식 전수와 언어기능 훈련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한국어의 어음, 어휘, 문법 지식을 전수함과 동시에 듣고 말하기와 읽고 쓰기의 기능훈련도 함께 하게 되어 있다.

4) 분리형 교재는 읽기 교재, 듣기 교재, 말하기 교재 등으로 나뉜 교재들로 지식전수와 기능훈련을 갈라서 하게 되어 있다.

문답식 교수는 자연스럽게 친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교수-학습으로 학습자들의 교제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자각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환경설치 교수법

학습자들은 추상적이기보다는 의미 있는 장면 속에서 더 쉽게 언어내용을 이해하며 복잡하고 정확한 언어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말할 때, 때로는 유창하지만 때로는 더듬거나 적절하지 못한데 이는 장면도움이 없이 추상적으로 말을 만들어 하는 때가 유창하지 못하고 내용도 풍부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말하기훈련에서 교사의 면밀한 장면설계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드라마 제작 감독처럼 시간, 지점, 사건, 화자의 신분, 의도 등을 학습자들에게 설계해 주고 그 장면을 상상해보게 한다.

학습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바래주다'라는 장면을 제시해 줄 때, 이런 장면들은 평소의 생활 장면이므로 별 어려움 없이 많은 일상용어들을 머리에 떠올린다. 교사는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배역을 나누어 의논하게 하고 그 과정에 교실 전반을 순회하면서 개별지도를 하거나 공동으로 걸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가: 오후에 집으로 가야겠어. 바래주지 못해 미안해.

나: 왜? 우리 내일 공원 가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가: 방금 집에서 전화 왔어. 아빠 내일 출장 가셔서.

나: 그래? 근데 난 약속이 있어서 못 바래주겠어.

가: 걱정 마. 함께 가는 친구가 있어.

나: 그럼, 방학 잘 지내라.

가: 그래. 고마워.

이러한 장면회화에서는 각자 맡은 배역의 진지한 감정들이 학습자들의 입을 통해 비교적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에 알맞은 연기도 진실할 수 있다. 이로부터 오직 장면 속에서만이 학습자들은 이미 배운 언어이론이나 교제기능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교제의 지식을 자기의 교제도구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설정된 장면은 친히 겪어본 것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어야지 생소한 장면은 학습자들의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므로 훈련이 잘 될 수 없다.

3) 화제 교수법

학습자들이 일정한 언어수준에 이르면 토의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갖 추게 된다. 토의는 교사가 학습자들과 상의하여 화제를 정하면 좋다. 장면설정과 같이 화제설정도 반드시 학습자들이 익숙히 알고 있고 관심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 혼인, 가치관, 취직, 인구, 환경 등을 화제로 토론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논점이나 논거를 제공하고 토론하게 할 수도 있고 학습자들의 견해로도 토론할 수 있다. 또 한국영화를 보고 주인공이나 제기된 문제를 화제로 할 수도 있다. 학습자들이 잘 아는 내용이나 사랑영화일 경우는 대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자유롭게 남녀주인공의 애정관이나 결혼관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토론에서는 대부분 강한 호기심을 갖고 논쟁하면서 주인공들의 애정관을 찬양, 비판, 이해 등이 다양한 견해를 제기한다.

위와 같이 규정된 화제 토의 외에 여러 가지 자유토의들도 조직할 수 있다. “내가 만일 총장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존경하는 선

생님” 등 화제들은 21세기 대학생들의 정신면모와 사고방식, 생활에 대한 가치관 등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토의 중에 교사는 학습자들의 착오를 즉시 시정해 줄 것이 아니라 메모한 후 토론이 끝난 다음의 총화에서 하나씩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토론과정에 착오를 지적해 주면 학습자들의 적극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틀리게 말할까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심리적 장애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제 교수법을 처음에는 화제에 대한 토론 준비를 미리 숙제로 준비하게 한 다음 진행하던 데로부터 점차 즉석토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4) 문장구조 교수법

문장구조 교수법은 새로 배운 문형이나 관용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의 문장을 만들게 하는 방법이다. 일부에서는 이 방법을 대치훈련이라고도 하는데 학습자들로 하여금 상용적인 문형이나 표현형식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ㄴ(을) 수 있다/없다”라는 관용어를 배웠다면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의 말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없다”, “너도 할 수 있다/없다”, “그들을 만날 수 있다/없다” 등등이다.

경우에 따라서 회화문의 단어결합 전체를 바꾸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예: 가: 시청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갔다 와도 괜찮을까요?

나: 예. 어서 다녀오십시오. 가는 길에 이 편지 좀 부쳐주세요.

이 두 사람은 대화에서 모두 명백한 목적성을 띠고 있다. 교사는 간단히 해석을 준 후 그들더러 밑줄 그은 부분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치훈련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말미를 얻거나 부탁을 하던 일을 비교적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예1: 가: 서점에 다녀오고 싶은데요.

나: 예. 어서 다녀오십시오. 가는 길에 노트 두 권 사다 주시겠어요?

예2: 가: 연에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갔다 와도 괜찮을까요?

나: 예. 어서 다녀오십시오. 가는 길에 광주 가는 차표 한 장 사다 주세요.

학습자들이 새로운 문형에 익숙해진 다음 교사는 그 문형을 실제 교제 속에 담아 한 단락의 대화를 하도록 이끌어준다. 훈련을 거쳐 학습자들은 아래와 같은 대화도 엮을 수 있다.

예3: 가: 병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나: 어디가 안 좋으세요?

가: 예.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나: 어서 다녀오십시오. 가는 길에 약 좀 사다 주시겠어요.

가: 무슨 약을 사다 드릴까요?

나: 감기약을 사다 주세요.

가: 그렇게 하죠.

나: 고맙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한 단락의 교제회화이다. 교사가 정성들여 인도하고 지도하면 학습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하기교수는 좋은 효과를 거둔다.

문장구조교수에서 종결술어 대치훈련을 중시해야 한다. 한국어는 다양한 어미로 식, 계칭, 존칭, 시제 등의 여러 가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기에 문법적 형태가 없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이 한국어어미

의 의미와 사용을 어려워한다. 종결술어 대치훈련이 중국학습자들의 한국어어미 사용능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나는 오후에 서점에 …”라는 조건을 준 다음 이 말을 끝내라고 하면서 연장자에게 말하는 경우, 동년배에게 말하는 경우, 손아래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의 표현을 달리하라는 요구를 제기한다. 그러면 학습자들은 교사의 요구에 따라 계칭에 맞는 어미를 사용하게 된다.

문장구조는 언어교제에서의 기능, 문화와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되므로 문장구조훈련을 할 때, 해당 문장의 기능과 문화적 요소의 제약성 등도 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될 때 일인칭 대명사 “나”와 삼인칭 대명사 “그” 뒤의 술어에는 명령식 어미가 쓰이지 못하고 이인칭 대명사 “너” 뒤에만 명령식 어미가 쓰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5) 언어실천 교수법

언어실천 교수법은 교실을 벗어나 사회실천 가운데서 언어를 배우게 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교실의 언어실천을 떠나 사회실천 중에서 한국어로 교제하고 한민족의 문화를 접촉하게 하는 것은 말하기 기능제고에 매우 유리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 교수방법이 국내에서는 조건의 제약을 받아 많은 학교들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연변대학의 경우에는 연변조선족 자치주라는 지리적인 우세를 이용하여 학습자들이 일정 기간 조선족들이 집거해 있는 부락에 내려가 같이 생활하면서 언어실천을 하면서 말하기훈련을 한다. 이 밖에 평시에 거리에 나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 조선족을 만나면 주동적으로 한국어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실천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말하기능력 제고에 도움을 준다.

6) 다양한 교수 형식

상술한 방법 외에 학습자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에 취미를 갖게 하기 위해 교수내용과 조건에 따라 학습자들의 의욕을 자아내고 한국어 응용기능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 예하면 강연, 연출, 이야기 모임, 유희, 영화 감상 등을 조직한다. 이러한 활동은 교실수업을 이용할 수도 있고 수업 외의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많이는 수업 외의 시간을 이용한다.

위의 방법 외에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얕은 데서 깊은 데로, 간단한 데서 복잡한 데로, 한·중 언어의 대비 등등의 일반적인 교수방법들도 쓰이게 된다.

3. 6 말하기 기능과 기타 기능들과의 관계

언어의 여러 가지 기능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 주고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기능은 듣기, 읽기, 쓰기, 번역 등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듣기, 읽기의 기능은 정보를 수입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말하기와 쓰기는 정보를 수출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습득에서 수입은 새로운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의미하고 수출은 배운 지식과 기능의 응용을 의미한다. 이 몇 가지 가운데서 듣기와 말하기가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기에 고급학년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결합시키기도 한다. 교수실천은 읽기와 쓰기능력이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 크게 영향 줌과 동시에 이들은 또 서로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학기당 강의시간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어떤 비례로 해야 바람직한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3. 7 말하기능력 검증 방법

말하기능력 검증도 말하기교수방법 연구에서 홀시할 수없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시험관의 물음에 따라 대답하는 형식과 글로 씌어진 내용을 보고 요구에 따라 대답하는 형식이 위주로 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 방법인가? 지금 많은 언어의 능력시험에 듣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는 있지만 말하기는 없고 쓰기로 대치한다. 이는 말하기시험이 공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통 면접시험의 경우엔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에 말하기도 한개 시험내용으로 하게 된다.

시험방법의 타당성 여부가 학습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게 되는 것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말하기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맺는말

교수방법 개혁의 최종목적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 내에 더 빨리, 더 잘, 더 많이 한국어 말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에 주의를 돌려야 하겠다.

첫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교사의 주도적 작용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현대교육이론은 학습자의 주체적 작용과 교사의 주도적인 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목적 등을 이해하고 그들의 학습자각성과 적극성을 동원해야 하며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수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둘째, 언어지식 전수와 언어기능 훈련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단순한 언어지식 전수도 극복해야 하거니와 단순한 기능훈련도 극복해야 한다. 이 양자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전반 교수체계의 개혁에서부터 해당 교수에 이르기까지 참답게 개혁해야 한다.

셋째, 구어기능과 문어기능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이 양자의 관계처리가 타당하지 못한 현상은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구경 어떻게 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인가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으며 계속 모색하는 과정이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4년제 대학교교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가 참답게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 교수방법의 개혁은 마땅히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외국어교수법의 연구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교수를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우리는 다른 언어의 교수방법도 참답게 배워야 하지만 한국어 실체에 맞는 독창적인 교수방법 연구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의 특성연구에 주의를 기울여 타민족들이 한국어를 보다 쉽게 더 잘 장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교수방법 개혁은 마땅히 현대화 과학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등은 현대화교수방법 개혁에 무한한 진경을 펼쳐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이러한 현대화기술이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교수방법개혁은 다른 언어교수에서 창조한 훌륭한 방법들을 허심히 배워야 함과 동시에 어종별 학습자의 실체에 맞는 맞춤형 교수법을 발구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중국어 학습자들의 기지의 지식과 문화에 적응되는 한국어교수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교수방법, 말하기교수, 교제 능력, 기능 훈련

참고문헌

- 김순녀(2002), “초급한국어회화 교재연구”, ‘세계 속의 조선(한국)언어문학 교양과 교재편찬’.
- 김순녀(2003), “초급한국어회화 평가연구”,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IV’, 태학사.
- 김중섭(2004), “한국어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김순녀(2005), “한국어회화 교수요강 연구”, ‘한국(조선)어 교육연구3’, 민족출판사.
- 김순녀(2006), “한국어회화 시험방법 탐구”, ‘한국어교육논문집’,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 박영순, “한국어 담화·텍스트론”, 한국문화사, 2004.
- 연변과기대 편(2000-2005),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I-VI), 태학사.
- 박갑수(2005),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성찰”, 서울대학교출판부.
- 趙賢州(1996), “對外漢語教學通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劉珣(2002), “漢語作為第二語言教學簡論”,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 Abstract

How to Teach Oral Korean in China

Jin, Shun-nu

Speaking is a very important skill for Korean learners in China. Oral Korean has been taught in China for many years under the methods which are used in teaching English or Japanese. On the basis of teaching experiences, this paper explores some new ways of teaching oral Korean: question-answer method, context-setting method, topic-based method, structural method, language practice method and etc.

[Key Words] teaching methods, teaching speaking, communicative competence, skill training